

# 임시공휴일 확정에 설레는 유통家... “매출 증가 기대”

### 내달 17일 지정...백화점·대형마트·숙박업체·음식점 등 기대

###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불가능 “국내에 소비진작 효과 집중될 듯”

“오랜만에 송풍 좀 트이겠네요. 모르긴 해도 매출이 배는 늘어날 겁니다.”

다음 달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유통업체들이 모처럼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한 상황에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올해 휴일 수(115일)가 지난해(117일)보다 적고, 코로나19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이 고려

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침체된 내수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임시공휴일 하루 매출이 50~100%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숙박업체와 음식점 등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황금연휴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생기면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많았다. 당연히 내수진작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

다.

국내 지역을 중심으로 레저와 관광 활동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등의 산업에도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미 유통업체는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눈치다. 보통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주말이 가장 많고 월요일이 가장 적다. 최대 두 배 차이가 나기도 한다.

임시공휴일은 주말이 하루 더 늘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월요일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임시공휴일 당일 매출이 전주 같은 날 보다

50~10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효과는 분명하다”며 “소비가 몰리면서 당일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에 맞춰 할인 행사 등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그동안 힘들었던 숙박업체와 음식점들도 송풍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으로 여행을 가거나, 호텔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임시공휴일에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소비지출액이 2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또 과급 경로를 통한 경제 전체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63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3만6000명



으로 추정했다.

또 “이번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점, 오락문화서비스업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역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당시 14~16일 연휴 기간 대형마트 매출은 25.6% 늘었고 백화점은 6.8% 증가했다. 고속도로통행량은 연휴 첫날(14일) 518만대에 달해 평일 수준을 기록했다.

## 작년말 가구당 순자산 4.6억...부동산 비중 76% ‘쏠림 여전’

### 국민순자산 전년比 6.8% 늘어난 1경5511조 ...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



지난해 말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이 2018년 말(4억3838만원)보다 5.5% 늘어난 4억6268만원으로 나타났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이 올라 비금융자산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가구당 자산 중 부동산(주택+비주택) 비중은 76%를 차지해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 이는 2018년 77.2%보다는 소폭 떨어진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을 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전체 자산을 의미하는 국민순자산(國富)은 1경6041조5000억원으로

지난 2018년 말 1경5563조8000억원보다 1057조7000억원(6.8%)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순대의 금융자산이 늘어났고, 토지자산을 중심으로 비생자산이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해외 직접투자자와 증권투자자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전년 말(487조7000억원)보다 92조3000억원 증가한 580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가구당 순자산은 4억6268만원으로 전년 말(4억3838만

원)보다 5.5% 증가했다. 다만 한은과 통계청은 가계부문만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아 가구당 순자산 규모를 추정치를 발표한다. 한은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의 순자산(9307조원)을 지난해 추계가구(2011만6000호) 수로 나눠서 4억6268만원을 도출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의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부채 규모와 증감을 기록한 통계다. 이번 국민대차대조표는 2015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국민순자산을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자산이 1경6041조5000억원, 순금융자산 580조원, 금융부채 1경6633조1000억원이었다. 국민순자산은 명목 국내총생산(1919조원) 대비 8.7배로 전년 말 8.2배보다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민순자산 증가를 이끌었다. 비금융자산 중

생자산은 지난해 말 722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22조7000억원(6.2%) 늘어났으며 비생자산은 8820조원으로 542조7000억원(6.6%) 증가했다. 생자산 중 선건설자산이 전년 말보다 309조7000억원(6.1%) 늘었고, 비생자산 중에선 토지자산이 전년대비 541조4000억원(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집값 상승으로 토지자산 등 상승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비금융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만 보면 토지 비중은 지난 2013년 53.2%로 저점을 기록한 후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 54.7%까지 확대됐다. 건물 비중도 2015년 20.7%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0.9%, 2017년 21%, 2018년 21.3%, 지난해 21.4%로 매년 상승했다.

지난해 말 GDP대비 토지자산의 비율은 4.6배를 기록하며 전년 말 4.3배보다 상승했다. 이는 1995년 통계관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뉴스1

## 백년가게, 현대·기아차

### 내비게이션에서 찾는다

### 브랜드 확산·홍보 효과 기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백년가게의 위치정보가 현대·기아차 동차 내비게이션에 탑재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일 부터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 ‘백년가게’ 정보를 연계했다고 21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업력 30년 이상인 가게 중에서 경영자의 혁신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화, 영입의 지속가능성 등을 전문가가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업체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405개 업체가 선정됐다.

동네 음식점, 미용실, 사진관, 양복점 등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발걸음을 해왔던 업체들은 백년가게로 선정되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 명소를 발돋움하고 있다.

백년가게 정보가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 탑재되면서 운전자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까운 거리의 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비게이션 지도에 백년가게 위치와 로고가 함께 노출돼 브랜드 확산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유통, 달콤한 영양간식 햇고구마 첫 판매

21일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모델들이 올해 첫 출하된 햇고구미를 소개하고 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는 전남 영암에서 생산한 밭고구미를 마음껏 골라 담아 구매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1인 가구나 날개를 원하는 고객들이 구매하기 알맞다.

## 상반기 알바소득 월 76만여원...전년比 5만원 ‘뚝’

### 알바몬 조사...서비스 알바생 소득 70만여원 가장 낮아

아르바이트생들이 올해 알바를 통해 얻은 소득은 월 평균 76만5000원으로 지난해 소득(81만7000원)보다 5만2000원을 덜 번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은 최근 알바생 3749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1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중 ‘지난해와 올해 모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알바생은 총

2449명(70%)이었다. 이들이 올해 거둔 월 소득(주관식)은 76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알바 종류별로 살펴 보면 고객상담/리서치 알바생의 올해 소득이 101만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비스 알바생들의 월 평균 소득이 70만4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 포스코, 사상 첫 분기 ‘영업적자’



포스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별도 기준 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포스코가 분기 영업적자를 거둔 건 지난 2000년 분기별 실적 발표를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이다.

21일 포스코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16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3% 감소했다고 공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3조72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049억원으로 84.6% 줄었다.

별도 기준 2분기 매출액은 5조8848억원이며 영업손실은 1085억원을 기록해 458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지난 1분기에 비해 적자전환했다. 지난해 2분기에는 724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는데, 1년 만에 영업이익이 8000억원 이상 감소한 셈

광석 가격은 상승하는 등 철강업계는 미증유의 어려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다만 포스코 측은 철강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어 실적은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부터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날 콘퍼런스룸에서 3분기 철강 가격 인상 전망에 대해 “원료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포스코도 판매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가격 인상을 시도하는데 수출 지역은 글로벌 상황에 맞춰서 이미 20~30% 인상했기에 7월부터 실적은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철강 부문은 부진했지만 글로벌 인프라 부문에선 포스코인더스트리얼 미얀마 가스전의 판매 호조와 포스코건설의 건축 및 플랜트사업 이익 개선, 포스코에너지의 터미널사업 확장 등 핵심사업에 대한 수익성 개선 노력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만회했다. 전 분기에 이어 유연생산판매

별도 기준 영업손실 1085억...영업이익 전년比 8천억 이상↓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수요 감소 탓...3분기 회복 예상”

이다. 올해 매출액 전망치(연결 기준)도 기존의 57조5363억원에서 55조4000억원으로 2조원 넘게 하향 조정했다. 올해 투자비도 5조2246억원에서 4조7211억원으로 5000억원 넘게 줄었다.

이날 콘퍼런스룸에서 포스코 측은 “포항1고로도 내년에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고(故) 박태준 명예회장이 건설에 나선 포항1고로는 1973년 6월 첫 가동 이후 우리나라 철강 역사를 이끌어왔지만, 48년 만에 불을 끄게 됐다.

포스코 측은 이번 실적 부진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산업 부진 및 시황 악화로 철강 부문에서 판매량과 판매가격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로 전 분기 대비 조강 및 제품 생산량은 각각 127만(톤)과 87만, 판매량은 85만 감소했다.

전종선 포스코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콘퍼런스룸에서 “2분기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경제활동이 극히 제한되면서 철강 수요 급감하고 철강제품의 가격 하락한 반면, 철

체를 운영하며 출산비와 철스크랩량을 조절하는 등 감소영향도 최소화했다. 제품, 원료 등 전사적 재고 감축과 비용 절감도 추진해 별도 기준 자급시재는 전분기 대비 3411억원 증가한 12조645억원을, 부채비율도 전분기 대비 1.4% 감소한 26.9%를 기록했다.

특히 포스코 측은 연결기준 자금 시재가 전분기 대비 1조5621억원 증가한 16조9133억원, 부채 비율은 전분기 대비 0.7% 감소한 72.8%를 기록하며 재무구조가 다소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포스코는 이번 분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하락이 불가피했지만,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전사 차원의 원가절감 활동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누계 원가절감액은 1752억원이다. 하반기에는 자동차강관용 가스틸 및 태양광 구조물용 PosMAC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Sales-Mix 최적화와 중국 등 수요 회복 지역으로의 수출 강화로 수익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